

오제의 동물

드넓은 오제에는 몸 길이가 겨우 2cm에 날개 길이가 15mm에 불과한, 일본에서 가장 작은 잠자리부터 체중이 최대 200kg에 이르는 반달가슴곰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오제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곰은 먹은 식물의 씨앗을 배설하여 식물의 번식을 돋는 등,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과 곰이 생활하는 장소가 겹치지 않도록 영역을 나누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공원 내 사슴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사슴이 늘어나면 습지나 숲의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슴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제의 포유류

공원 내에는 34 종의 포유류가 있지만, 좀처럼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단,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곰과 마주쳤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 일본산양(*Capricornis crispus*)은 소목 속과로서 산양과 비슷한 동물입니다. 좀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인기가 있는 동물은 족제비속의 오코조(*Mustela erminea Nippon*)입니다. 귀엽고 무해하게 보이지만 오코조는 육식동물로서 작은 포유류나 새를 잡아먹습니다. 그 외에 토끼나 작은 겨울잠쥐 등과 때때로 만날 수 있습니다.

박스:

곰과 마주쳤다면

반달가슴곰은 다른 종류의 곰과 비교하면 공격적이지 않고 인간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곰이 위협에 노출되었다고 느끼거나 갑자기 놀라거나 하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 길가의 정해진 구역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방울을 울리시기 바랍니다. 손뼉을 치거나 말을 주고받으며 인간이 가까이 있음을 곰에게 알려주세요. 만약 곰과 맞닥뜨렸을 경우에는 큰 소리를 내거나 뛰지 말고, 천천히

조용하게 그 장소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제의 들새들

공원 내에서는 160 종 이상의 조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은 철새가 습지를 선호하지만, 숲속에 둑지를 짓는 새들도 있습니다. 습지에서는 붉은뺨멧새(*Emberiza fucata*), 흰뺨검둥오리(*Anas poecilorhyncha*), 큰깍도요(*Gallinago hardwickii*)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숲에는 오색딱따구리(*Dendrocopos major*), 황금새(*Ficedula narcissina*),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때 일본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렸던 휘파람새(*Horornis diphone*)가 있습니다. 해발이 높고 바위가 많은 지역에서는 바위종다리(*Prunella collaris*)와 잣까마귀(*Nucifraga caryocatactes*)를 볼 수 있습니다.

오제의 양서류

공원 내에는 일본 고유종인 산개구리(*Rana ornativentris*)와 일본얼룩배영원(*Cynops pyrrhogaster*) 등 9 종의 양서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무 길 위에서 높이나 강 속을 들여다보면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호쿠도롱뇽(*Hynobius lichenatus*)처럼 잘 보이지 않는 종도 있습니다.

오제의 물고기들

송어와 닳은 곤들매기(*Salvelinus*)와 작은 벼들치 등 10 종의 물고기가 오제에 살고 있습니다. 곤들매기 소금구이는 인기 있는 향토 요리이지만, 공원 내에서 낚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제의 곤충들

오제의 생태계는 곤충에게 이상적이어서 공원 내의 높이나 강, 습지, 숲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곤충을 볼 수 있습니다. 실잠자리(*Zygoptera*), 꼬마잠자리(*Nannophya pygmaea*), 산호랑나비(*Papilio machaon*) 등 추운 지역에서만 사는 잠자리와 고지대를 좋아하는 나비도 서식하고 있습니다.